# 농촌일손부족해소…외인근로자3.8만배정

농식품부, 2023년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 대책 영농기 등 연인원 352만 공급····중개소 16곳 추가 계절근로자 2.4만 등 외국 인력 전년比 73% 늘려

정부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농업분야에 내국인 인력 공급을 연인원 352만명으로 확대하고, 계절 근로제 등을 이용한 외국인 근로자 3 만8000명을 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농업 분야 인력 수급 지원 대 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업분야 농작업 인력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와 고 추,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 (8~10월)에 70% 이상 인력 수요가 집 중될 전망이다.

농번기와 수확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내국인 인력 공급을 전년 대비 20% 증가한 연인원 352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9개 시·군에 농촌인력중 개센터 16개소를 추가해 전국에 총 170개소를 운영한다. 고용부와 협력 해 도시 구직자 모집 활성화로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구인·구 직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 업반도 올해 30개소에서 3만명을 운 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지 자체를 통한 농촌 일손 돕기 참여 인 원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기간 입국이 제한되면서 크게 줄었던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 올해는 역대 최대인 3만8000명 규 모로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1 만4000명을 배정하고, 계절근로제 외 국인 근로자(C-4, E-8)는 121개 시· 군에 2만4418명을 배정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외국 근로자 배정을 끝내 조기에 인력 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1~2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 인 근로자 4681명이 입국하는 등 전 년 동기 대비 6배가량 증가했다. 1개월 미만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30개 중점 관리 시·군을 선정,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도농인력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인력 공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을 연계한 인력 수급 지원 테스크포스 (TF)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 부족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춘 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 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와 농업분야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



#### 여수해경,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로 해양사고 예방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유·도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진도소방, 든든한 안전 지킴이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역사회 안전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목표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체험 소방 안전교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 담양소방,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강화 및 개선을 위해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강진소방, 봄철 부주의 화재예방 캠페인 나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지난 15일 부주의 화재예방 캠페인을 강진여객버스터미널에서 실시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무안소방,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식수행사 개최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와 무안군 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성동호)는 16일 '제 2회 의용소방대의 날'(3월 19일)을 맞아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 <sub>1</sub>. 무안=이기성기자



#### 나주경찰, 대학생 치안 서포터즈 '유니폴' 과 간담회 가져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16일 대호동 소재 카페에서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10명, 지도교수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치안 서포터즈인 '유니폴'간 담회 및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 마약 환자 급증하는데…치료해줄 병원·의사는 '태부족' 대책마련 시급

마약범죄 재범률 37%…30대 이하 60% 치료 가능 병원 2곳…의사는 38명 줄어

마약류 중독자 급증으로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국내 치료 환경은 열악하다. 마약류 중독 환자를 치료하려는 병원과 의사가 태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검찰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2017년(1만4123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마약 사범은 35.63명으로 역대최대 규모다. 특히 국내 마약 범죄 재범률은 약 37%에 달하고, 사회생활이 한창 활발해야 할 30대 이하가전체 마약 사범의 약 60%를 차지한다.

마약 중독은 치료로 회복 가능한 뇌질환이다. 뇌에서 약물 중독에 직 접적으로 관여하는 측좌핵 치료하 는 '고집적 초음파 뇌수술' 같은 효 과적인 치료법도 있다. 장진우 세 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고집 적 초음파 뇌수술은 마약류에 중독 됐다가 약물 투여가 중단되면 나타 나는 극심한 갈망감을 치료할 수 있 다"면서 "이미 안정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반복적 치료가 가능해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의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고 싶어도 실제 치료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전국에 마약류 범죄자를 전문적 으로 치료하는 치료보호기관이 21 곳 지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 영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지난 해 상반기 기준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이 전체 환자의 96% 를 치료했다. 입원 가능한 병상과 치 료 가능한 전문의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 2021년 기준 치료보호기관의 총 병상 수는 292개, 의사 수는 132 명으로 2017년 대비 각각 38개, 38 명 감소했다. 이렇듯 국내 마약류 중 독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치료 보호를 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지난 2021년 280명에 불과했다. 같은 해 검거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450명) 의 38% 수준이다. 뇌가 완전히 발달 하지 않아 성인보다 약물 복용에 더 취약한 청소년조차 중독 치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초범을 줄이고 높은 재범률을 낮추려면 마약류 중 독자들을 환자로 보고 정부가 촘촘 한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입을 모은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파괴된 도파민이 회복되려면 최소 1~2년이 걸려 이 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담당할 병원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마약류 중독자의 87.5%는 약물을 끊은후 1년 내 재발하는데, 1년 안에 재발을 막을 경우 재발률은 12.5%에 그쳐서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 환자의 특성 상 관리와 치료가 까다로운 반면 보 상은 턱없이 부족해 마약 중독 환자 의 입원을 꺼리는 병원이 많다. 치료 보호기관 21곳 중 최근 5년 간 실적 이 전무한 곳이 9곳에 달한다.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려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지만 수가 인상 등 보상 체계는 미흡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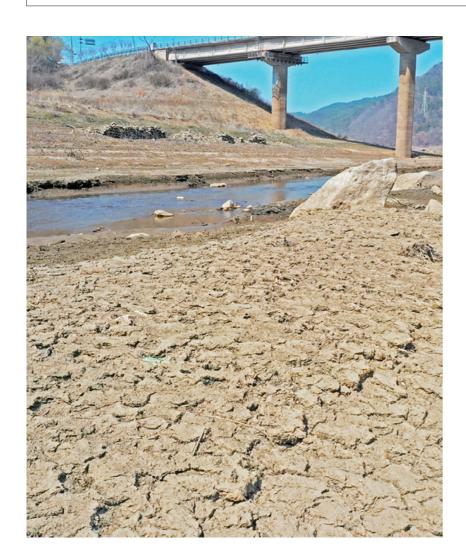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이 거의 없고 재활시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일반정신질환자보다 10배 이상 더 힘든데 치료비 지원만으로는 병원이 이

득을 얻을 수 없고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의가 마약류 중독 환자 곁에 항상 있긴 어려운 만큼 디지털 치료 제 등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해 보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 치료제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스 마트폰 앱 등의 형식으로 예방·관 리·치료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다.

이승엽 은평성모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교수는 "마약 중독 환자는 전 과와 경력 부족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해 재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약물을 끊는 고통 등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치 료제를 활용한다면 약 없이 잘 지내 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 중독이 발생하는 과정 등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970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1974년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를 설립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18억4천 달러(약 2조4300억 원)가 책정됐고, 현재 연구자는 2300명 가량에 달한다.



갈라진 주암호 상류

라진 채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전남에 가뭄이 이어지는 상황에 19일 오후 전남 화순군 사평면 주암호 상류 일부 강바닥이 메말라 갈

## 순천 산불, 12시간여만에 주불 진화

#### 산불진화헬기 16대, 산불진화대원 758명 투입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2시간 10분 만인 19일 오전 9시 30분께 진화됐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발생한 산불은 산불 진화 헬기 16대, 산불 진화 대원 758명이 투입돼 주불 진화를 마쳤다.

산불 현장에는 북서풍이 평균 초속 4m, 최대풍속은 14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야간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산림 당국은 19일 0시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진화 및 산불확산을 저 지했으며 날이 밝자 장비와 인력을 일 제히 투입해 진화를 서둘렀다.

산림 당국은 소방차 13대 지휘·진화차 7대 등 산불 진화 장비 20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원 114명 등 산불 진화대원 758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및 산불확산을 저지했다.

인근에 축사와 사찰은 만일을 대비해 방화선을 미리 구축했으며, 산림 드론 열화상카메라를 동원해 화선 탐색 및 효율적 진화 작전을 펼쳤다. 산불영향 구역은 약 16ha, 산불 잔

여 화선은 약 1.45km로 추정됐다.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 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이 재 발화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감

원 집으로 돌아갔다.

발화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므로, 산림으로 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마을회관 동화사 등으로 대피한 별

산림 당국은 임야에서 낙엽 소각 중

량면 금동마을 외 3개 마을 53가구 59 명은 오전 시간 안전이 확보되면서 전